

[2013년6월3일 오늘의 아침편지]

'실속 없는 과식'  
'実利のない過食'

비만이  
肥満が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데는  
伝染病のように広がっているのは

'실속 없는 과식'이 한몫을 하고 있다.  
'実利のない過食'が一役買っている

'실속 없는 과식'이란 잔뜩 포식을 하면서도  
'実利のない過食'というひどい飽食しながらも

한편으로는 굶주리는 식습관을 말하는 것이다.  
一方では、飢えた食習慣を言うのだ

칼로리는 높되 영양가는 너무 낮은 식사가 특징이다.  
カロリーは高いが、栄養価はとても低い食事が特徴だ

몸이 제 기능을 하려면 필수영양소가 필요한데,  
体が自分の機能をするには、必須栄養素が必要だが

몸은 이 영양소들을 충분히 얻을 때까지  
体はこの栄養素を十分に得るまで

우리에게 뭐든 먹으라는 신호를  
我々になんでも食べろという信号を

계속 보낸다.  
続けて送る

- 빌 필립스의《내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중에서 -  
- ビル・フィリップスの〈私の人生最後のダイエット〉 -

\* '실속 없는 과식'  
\* '実利のない過食'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そうしないようにしながらも

매일 반복하고 있는 습관 아닌가요?  
毎日続けている習慣ではありませんか?

평소 좋아하는 입맛대로 마음껏 먹다 보면  
平素好きな味のままのように、心行くまで食べれば

'실속 없는 과식'을 하기 쉽습니다. 음식은  
'実利のない過食'をしやすいです。食べ物は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量ではなく質です。必要な栄養素を

골고루 적게 먹는 것, 비만 전염병을  
もれなく少なく食べること、肥満の伝染病を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逃れる近道です

실속 [實一]

1. [명사] 實際の内容; 中身。
2. [명사] 目に見えない利益; 実利。

퍼지다

1. [자동사] 広がる; 広くなる; 伸びる; 張る。
2. [자동사] 広まる; 広がる; 広く行き渡る; 知れわたる; 流行する; はやる。

한몫

1. [명사] 一人当たりの分量や役割; 分け前; 割り前; 取り前; 一口; 一役。

잔뜩

1. [부사] 最大限に; いっぱい; たくさん; うんと; すっかり; ひどく。

포식 [飽食]

1.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飽食; あきるほどじゅうぶん食べること; 食い飽きること。

한편 [一便]

1. [명사] 一方; 片方; 片側。
2. [명사] 同じ仲間; 味方; 同類。

굶주리다

1. [자동사] 空かす; 飢える; ひもじい思いをする。
2. [자동사] もの足りない; 飢える。

골고루

1. [부사] 高루高루の縮約形:もれなく; いちいち; ことごとく。

지름길

1. [명사] 近道。
2. [명사] 早く行ける道。

벗어나다

1. [자동사·타동사] 外れる; 抜ける; 逸脱する; それる。
2. [자동사·타동사] 抜け出る; 脱する; 逃れる; 免れる; 解放される。

[2013년6월4일 오늘의 아침편지]

힐러의 손  
ヒーラーの手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我々がほかの人より

더 많은 생명력이 있는 경우,  
さらに多くの生命力がある場合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생명력을  
その人の体に手を載せて生命力を

전달한다는 암시를 주면 그 사람의 몸으로  
伝える暗示を与えれば、その人の体に

생명력이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들어간 생명력은  
生命力が流れていく。このように流れた生命力は

중간 자아의 명령에 반응하고, 이 생명력은  
中間自我の命令に反応し、この生命力は

환자의 아픈 부위로 가서  
患者の病気の部位に行って

그곳을 치유한다.  
そこを治癒する

- 맥스 프리덤 통의《호오포노포노, 후나의 기적의 치유법》중에서 -  
- マックス・F・ロング<ホ・オポノポノ奇蹟の原点カフナの秘法(邦題)>より -

\* '힐링'은  
\* 'ヒーリング'은

내 안에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私の中の生命力を回復することです

'힐러'는 그렇게 회복된 생명력으로 다른 사람의 몸에  
'ヒーラー'はこのように回復された生命力で、ほかの人の体に

손을 얹어 치유의 기운을 보내주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手を置いて治癒の気運を送る人を指します

내가 먼저 힐링이 되어야 힐러가 될 수 있습니다.  
私がまずヒーリングされて、ヒーラー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힐러가 되면 '치유의 손'으로 바뀝니다.  
ヒーラーになれば'治癒の手'に変わります

힐러의 손 하나가 많은 사람을  
ヒーラーの手一つがたくさんの人を

생명으로 치유합니다.  
生命で治癒します

었다

1. [타동사] 上げる; 戴せる。
2. [타동사] 金銭を付け加える; 重ねる。

중간 [中間]

1. [명사] 中間。
2. [명사] 二つのものの間; 中程; 半ば。

[2013년6월5일 오늘의 아침편지]

위대한 시작  
偉大な始まり

작은 점 하나가  
小さな点一つが

위대한 시작입니다.  
偉大な始まりです

새로운 경험과 경이로운 만남이 점이 되고  
新しい経験と驚異の出会いが点になって

그 점들이 이어져 선이 되고 이야기(story)가 됩니다.  
その点がつながって線になり、話になります

그 이야기가 빛나면 인생도 빛이 납니다.  
その話が輝けば、人生も輝きます

그 이야기가 위대하면 그 사람의  
その話が偉大なら、その人の

인생도 위대해집니다.  
人生も偉大になります

- 고도원의《위대한 시작》중에서 -  
- コ・ドウォンの〈偉大な始まり〉より -

\* 위대한 사람에게는  
\* 偉大な人には

반드시 '위대한 시작'이 있습니다.  
必ず'偉大な始まり'があります

새로운 경험, 새로운 발견, 새로운 만남!  
偉大な経験、新しい発見、新しい出会い!

그 한 번의 짧은 순간이 그 사람의 일생에  
その1回の短い瞬間がその人の人生に

새로운 꿈을 안겨주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新しい夢をあたえる'偉大な始まり'です

숨겨진 재능이 빛을 내기 시작하고  
隠れた才能が、光を出しはじめて

새로운 자신감과 도전이  
新しい自信と挑戦が

시작됩니다.  
始まります

2013년 6월 6일 보낸 편지입니다.(2,528조화)

사고의 틀  
思考の形

좋은 사고의 틀을 만드는 것은  
いい思考の形を作ること

과학보다는 예술에 가깝지만 분명 배울 수  
科学より芸術に近いが、本当に学ぶことができる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경쟁자들보다 이러한  
のだ。もしあなたが競争者よりこのような

사고 틀의 기술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면 분명한  
思考の形の技術を適切に使用できれば、明確な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당신은  
利点を持つことができる。そうできない場合、あなたは

어느 날 아침 자신이 사고의 틀에 속박되어  
ある日朝、自分が思考の形に束縛されて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いるのに気付くだろう

- J.에드워드 루소의《이기는 결정》중에서 -  
- J・エドワード・ルツソの<勝つ決定>より -

\* '열린 사고'가  
\* '開かれた思考'가

사람 사이를 열어줍니다.  
人の間を開いてくれます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 길을 열어줍니다.  
自分が歩いていく人生の道を開いてくれます

그와 반대로 '닫힌 사고'는 모든 것을 닫아버립니다.  
それと反対に'閉じた思考'は、すべてのことを閉じ込めてしまいます

'사고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思考の形'が作られたのは、そのように生きてきた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열린 사고'로 살았느냐,  
ことを示しています。今まで'開かれた思考'で生きていたのか

'닫힌 사고'로 살았느냐, 그 사고의 틀이  
'閉じた思考'で生きたのか、その思考の形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自分の未来を決定します。

틀  
[명사]

20130606.txt

(골판이 되는 것) 物の形をつくったり取ったりするもとなるもの: 型.  
一定の格式や形式.

(테두리로 된 것) 物を入れたりさし込んだりするための物; 縁; 枠; フレーム; 台枠.

2013년 6월 7일 보낸 편지입니다.(528조회)

'꽃의 여왕' 장미  
'花の女王'バラ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  
'花の女王'と呼ばれるバラ

그래서 그것을 대신할 꽃이 없다고 하지만,  
だからそれに代わる花がないが

각종 여러해살이풀들이 어울려 피운 꽃들의 하모니는  
各種多年草が調和して咲く花のハーモニーは

여왕의 아름다움을 능가하고도 남는다. 굳이 장미같이  
女王の美しさを凌駕して余りある。あえてバラのように

뛰어난 인재가 아니더라도 제 몫을 담당하며, 팀워크를  
秀でた人材でなくても、私の役割を担当し、チームワークを

조화롭게 이를 줄 아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직원으로  
調和するようにできる人なら、立派なスタッフに

인정해주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오늘 아침  
認定されると心に決めた。今日の朝

에덴정원에 가득 핀 꽃들이 내게  
エデンの庭にいっぱい咲いた花が私に

가르쳐준 경영의 지혜다.  
教えてくれた経営の知恵だ

- 이영자의《아침고요 정원일기》중에서 -  
- イ・ヨンジャの〈朝の静けさ庭園日記〉より -

\* 웅달샘에도 장미가 한창입니다.  
\* 小さな泉もバラがたくさんです

그 자태와 향기를 가히 따를 꽃이 없습니다.  
その姿と香りに追従できる花がありません

그렇다고 사람들이 장미꽃만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それでも人々は、バラの花だけを眺めません

바위틈 이끼에 핀 작은 들꽃 하나에도 탄성을 지르고  
岩間、コケに咲いた小さな花一つにも唸り声をあげて

카메라 셔터를 눌러댁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カメラのシャッターを切ります。良く見えないところにも

장미꽃보다 더 빛나는 아침지기들이 있어  
バラの花より、輝く朝があつて

웅달샘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小さな泉は一層美しくなります。



참 감사한 일입니다.  
本当にありがたいことです

**多年生草本** 재생 (표제어:여러해살이)

여러해살이풀

훌륭하다

[형용사]

**立派だ.**

(당당함) 堂々(どうどう)として美しい.

(씩 좋음) すぐれている; 見事だ; すばらしい; 結構だ.

어울리다

[자동사]

[‘어우르다’의 受け身] 似合う; 釣り合う; 調和する; しっくりする.

交わる.[작은말]아울리다.[준말]얼리다.

피우다

[타동사]

[‘피다’의 使役]

(꽃 따위를) (花などを)咲かせる; 開く.

(23건)

고요

[명사]

静けさ; 静寂.

[기상] 静穏.

(불을) (火を)起こす; たく.

능가 (凌駕)

[명사] 凌駕.

남다

[자동사]

(...한 나머지) 余る; 残る; 余分がある; 浮く.

(잔류) 残る; 残留[残存]する; 生き残る; とどまる.

가히 (可一)

[부사]

(主に ‘—ㄴ 만하다’·‘—ㄴ 수 있다’·‘—ㄴ 직하다’などと共に用いて) ‘よく; 十分に; かなり; ほんとうに; まさ...

(おもに, 否定語と共に用いて) ‘当然; 果たして; どうして’などの意を表わす語.

(이름·습속 등) 残る; 後世に伝わる.

자태 (姿態)

[명사] 姿態; 姿; 見目形; からだつき.

바위

[명사]

岩.

(じゃんけんで)石; ぐう.

이끼1

[명사][식물] コケ(苔·蘚).

唸り声をあげる 재생 (표제어:うなりごえ)

탄성을 지르다

-지기2

[접미사] 番人の意を表わす語; ...番; ...守り.

[2013년6월8일 오늘의 아침편지]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오지연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オ・ジヨ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깜빡 잊은 답신 전화  
うっかり忘れた返信電話

“응, 지금 급한 일하고  
”うん、今急な仕事で

조금 있다가 내가 전화할게.”  
しばらくして、私が電話するよ”

누구나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誰でもこのようにいって、電話を切ったことが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깜빡 잊고 전화를 안 해주면  
あるだろう。しかし、うっかり忘れて電話をしないなら

어떻게 될까? 처음 한두 번은 괜찮다. 하지만  
どうなるか? 最初、2回くらいは大丈夫。しかし

서너 번 계속되면 친한 사람을 잃게 된다.  
3, 4回続けば、親しい人を失うようになる

왜냐하면 답신을 안 해준다는 것은  
なぜなら、返信をしないことは

상대방에게 “너는 나에게 중요한  
相手に”お前は私に重要な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人ではない”という

것과 같기 때문이다.  
ことと同じだからだ

- 김양래의《깜빡깜빡 40대 기억력 스무살로 바꿀 수 있다》중에서 -  
- キム・ヤンレの<きらきら40台の記憶力、20歳に変わることができる> -

\* 인간관계의 부드러움은  
\* 人間関係の柔らかさは

거창한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大げさなところから来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안부 전화 한 통, 따스한 격려 한마디,  
安否電話1回。温かい激励の一言

그에게로 가는 발걸음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彼にむかう一歩。1回で十分です。

작고 사소한 마음 씩씩이가 사람과 사람  
小さく、些細な心遣いが人と人

사이를 부드럽게 합니다.  
の間を柔らかくします

うっかり思い違いする 재생 (표제어:おもいちがい)

깜빡 착각하다

서너

[관형사]三つか四つの意; 三四:(さんよん).

친하다 (親—)

[형용사]親しい; 近しい.

[자동사][타동사]親しむ; 仲よくする; 親しく交わる; 親しくする.

うつつ 재생

자는 등 마는 듯한 모양; 깜빡깜빡 조는 모양.(=うとと)

거창하다 (巨創—)

[형용사]雄大だ; 巨大だ; ご大層だ; おおげさだ.

씩씩이

[명사]費用; 支出; 掛かり.

2013년 6월 10일 보낸 편지입니다.(315조회)

사치  
贅沢

여행은 시간을 들이는  
旅行は時間を使う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ことだと思われがちです

내게 있어 여행은 시간을 벌어드리는 일이었다.  
私にとって旅行は時間を稼ぐことだった

낯선 곳으로의 도착은 우리를 100년 전으로,  
見知らぬところへの到着は、我々を100年前に

100년 후로 안내한다. 그러니까 나의 사치는  
100年後に案内する。だから私の贅沢は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감히 시간을  
ようやく集めた金で、あえて時間を

사겠다는 모험인 것이다.  
買うという冒険なのだ

- 이병률의《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중에서 -  
- イ・ビョンリョルの《風がふく、あなたがよい》より -

\* 사노라면  
\* 生きています

때로는 사치도 필요합니다.  
時には贅沢も必要です

입술도 칠하고 귀걸이 목걸이도 걸어  
口紅を差したり、イヤリング、ネックレスもかけて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繰り返される日常に新しい生気を吹き込みます

아마도 가장 의미있는 사치가 여행인지도 모릅니다.  
たぶん、一番面白い贅沢が旅行かも知れません

얼굴을 꾸미고 몸을 치장하는 사치가 아니라  
お化粧して、身なりを整える贅沢ではなく

인생의 시간을 벌어들여 새롭게 시작하는,  
人生の時間を稼ぐ、新しく始める

그래서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だから、人生を豊かにする

값진 사치입니다.  
価値ある贅沢です

사치 (贅沢)

[명사] 贅沢; 驕奢; 奢り; ぜいたく.

벌다2

[타동사]

(돈을) もうける; 稼ぐ.

(벌 따위를) 悪いことをして罰を自ら招く.

(이익을) 利益を得る; 稼ぐ.

낯설다

[형용사]

(人に対して) 面識がない; 見慣れない; 見知らない.

(物事に対して) 不慣れだ; なじみが薄い; 見知らない.

어렵사리

[부사] ひどく苦勞して; やっと; ようやく.

口紅を差す[つける] 재생 (표제어:くちべに)

입술연지를 칠하다[바르다]

かおをつくる [顔を作る]

얼굴을 꾸미다; 화장을 하다.

身なりを飾る 재생

몸을 치장하다

2013년 6월 11일 보낸 편지입니다.(410조회)

청춘의 특권  
青春の特権

실패는 청춘의 특권입니다.  
失敗は青春の特権です

젊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若いことはすべてのことを、また始めることができるのを

뜻입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전체 인생을 생각하면  
意味します。特に思春期は全体の人生を考えれば

몇 걸음 내딛지 않은 것이고, 이제 막 스케치를  
数歩も踏み出さないだろうし、今まさにスケッチを

시작한 단계입니다. 인생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始めた段階です。人生とは絵を完成する前に

몇 번이고 고쳐 그릴 수 있는 때입니다.  
何回も直して、描くことができる時です

그러니 그려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だから、描いていく過程で出会う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失敗を恐れなくてください

- 고도원의《위대한 시작》중에서 -  
- コ・ドウオンの〈偉大な始まり〉より -

\* 좋은 그림은  
\* いい絵は

좋은 스케치에서 시작됩니다.  
いいスケッチから始まります

그림이 잘못되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絵が間違っていたり、気に入らないなら

스케치를 처음부터 다시 그리면 됩니다.  
スケッチをはじめからまた描けばよいです

열 번 백 번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10回、100回、また描くことができます

언제든 다시 그릴 수 있는 것이  
いつでもまた描くことができるのが

청춘의 특권입니다.  
青春の特権です

위대한 시작입니다.  
偉大な始まりです

전체 (全體)

[명사]

全体.

全身.

全部; 總体.

내딛다

[타동사]내디디다의 준말

내디디다

[타동사]踏み出す.[준말]내딛다.

막1

[부사]

たった今; 今し方; 今しも.

ちょうど(その時); まさに.

[2013년6월12일 오늘의 아침편지]

뿌리와 날개  
根っことつばさ

꼭 해외에 가서  
必ず海外に行つて

살아야만 글로벌 인재는 아닙니다.  
生きるだけがグローバル人材ではありません

화려한 경력을 쌓아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華やかな経歴を積むだけでな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곳을 사랑하면서도  
自分が生まれ育つ場所を愛しながら

그곳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배우는 사람,  
そこに閉じ込められず、さらに広い世の中を夢見て学ぶ人

자신의 역사를 배우고 뿌리를 아는 사람, 다른 나라의  
自分の歴史を学んで、根っこをわかる人。他の国の

역사와 문화까지도 존중하는 사람... 그렇게 튼튼한  
歴史と文化までも尊敬する人...そのように丈夫な

뿌리와 날개를 가질 때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  
根っこと羽をもつとき本当のグローバル人材に

성장할 수 있습니다.  
成長できます

- 고도원의《위대한 시작》중에서 -  
- コ・ドウオンの〈偉大な始まり〉より -

\* 뿌리가 약하면  
\* 根っかが弱けれ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その場所に立っていることができません

날개가 없으면 새로운 세상으로 날 수 없습니다.  
羽がなければ、あたららしい世の中に飛ぶことができません

뿌리가 튼튼해야 태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根っかが丈夫で、台風に勝つことができます

날개가 튼튼해야 멀리 날 수가 있습니다.  
羽が丈夫で、遠くに飛ぶことができます

자기 인생의 초반기에 뿌리와 날개를  
自分の人生の序盤に根っこと羽を

튼튼하게 해야, 훗날 사람 앞에  
丈夫にして、後日人の前に



20130612.txt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ちゃんと立つことができます

갈히다

[자동사][‘가두다’의受け身] 監禁される; 囲まれる; 閉じこめられる; (雪などに)閉ざされる; (雨などに)降りこめら...

초반 (礎盤)

[명사] 礎盤; 礎石; 礎.

2013년 6월 13일 보낸 편지입니다.(485조회)

내 안의 폭군, 내 안의 천사  
私の中の暴君、私の中の天使

“우리 안의 강한 충동,  
”私の中の強い衝動

우리 안에 있는 폭군에게는  
我々の中にある暴君には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양심도 굴복하게 된다.”  
我々の理性だけでなく、良心も屈服するようになる”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원함과 미움을 가진 사람은  
自分自身をごまかして、恨みと、憎しみを持った人は

스스로에게 불만스러울 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自らに不満だけでなく、周りの人にも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게 된다.  
否定的思考と、心をそのまま表現するようになる

즉 그는 스스로 폭군이 되어 자신을 부정하며  
すなわち彼自ら暴君になって自分を否定して

타인에게도 폭력적이 된다.  
他人にも暴力的になる

- 김정현의《철학과 마음의 치유》중에서 -  
- キム・ジョンヒョン〈哲学と心の治癒〉 -

\* 평소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도  
\* 普段そんなに見えなかった人も

어느 한순간에 폭군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ある瞬間に、暴君に変化したりします

내 안의 '폭군'이 별것도 아닌 일에 욕하고 튀어나와  
私の中の暴君が'何でもないこと'をかつとなって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냅니다.  
自分自身はもちろん、他人にも傷を与えます

그래서, 내 안의 폭군을 얼른 몰아내야 합니다.  
だから、私の中の暴君をすぐに退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 빈자리에 천사를 모시면 미소가 번지고  
その空席に、天使を迎えれば、微笑が広がって

내 안의 꽃을 피우면 향기가 번집니다.  
私の中の花が咲けば、香りが広がります

폭군(暴君)  
[명사]暴君; タイラント.

충동 (衝動)

[명사]衝動.

부정 (不正)

[명사]不正; いんちき[속어]; ごまかし[속어].

옥하다

[자동사]短氣[かんしゃく]を起こす; かつとする; 逆上する; のぼせ上がる.

튀어나오다

[자동사]

跳ね出る; 飛び出る; 飛び出す.

突き出る; 出張る.

2013년 6월 14일 보낸 편지입니다.(455조회)

저 꽃들처럼  
あの花のように

여름 한철 기껏해야  
夏の最盛期のせいぜい

열흘이나 보름 남짓 피다 지는  
10日か15日あまり、咲いて散る

저 꽃들도 지는 날까지 방싯대며 웃는데  
あの花も、散る日までにっこり笑うのに

인생의 꽃밭에서 수십 년 사는 세월,  
人生の花壇で数十年生きる歲月

저 꽃들처럼 환한 웃음 지으며  
あの花のように明るい微笑みを浮かべながら

살다 가고 싶다.  
生きていきたい

- 이영자의《아침고요 정원일기》중에서 -  
- イ・ヨンジャの<朝の静けさ庭園日記>より -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 '人が花より美しい'といいます

짜증내고 찡그린 얼굴일 때를 말하는 것은  
癩癩を起して、しかめる顔ときにいうのでは

분명 아닐 것입니다. 저 꽃들처럼 환히 웃을 때,  
確かにないでしょう。あの花のように明るい微笑みの時

저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을 때,  
人々が美しい香りを出すとき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人が花より美しいです。

한철  
[명사]季節の盛り; もっとも旺盛な時; 最盛期.  
기껏해야  
[부사]精々(せいぜい)(のところ); 高々(たかだか); 高が.(→고작)  
열흘  
[명사]十日; 旬日.  
보름  
[명사]  
15日間; 半月·(はんげつ).  
보름날의 준말  
대보름날의 준말  
남짓  
[의존명사](重さ·分量·数などが)やや余ること; 余り; 有余.  
피다1

[자동사]

(꽃이) (花)가咲く; 開く.

(사람이) 肉がつき血色がよくなる; なまめく.

(불이) 火がつく; 熾る.

방시레

[부사]ほほえむさま: にこやかに; にっこりと.[큰말]빙시레.[센말] 뽕시레.

환하다

[형용사]

明るい.

広々(ひろびろ)としている; (前方が)ぱっと開けている; 見通しがいい.

(中身や織り目などが)透けて見える.

짜증

[명사]癩癩; 癩; むかつ腹; 嫌気; (子供の)虫(気); うんざりすること; いらだち; むずかり.

짱그리다

[타동사]しかめる; ひそめる.[작은말]짱그리다.

저마다

[부사]人ごとに; 人々(ひとびと)が皆; 口々(くちぐち)に; おのおの.

[명사]おのおの; 各自; それぞれ.

20130615.txt

2013년 6월 15일 보낸 편지입니다.(763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임윤경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 입니다.  
今日は、イム・ユンギョ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잘 자는 아기 만드는 '잠깐 멈추기'  
良く育つ赤ちゃんを作る'ちょっと休止'

프랑스 아기들은  
フランスの赤ちゃんたちは

생후 2~3개월만 되면  
生後2~3か月になれば

밤새 깨지 않고 잘 잔다고 한다.  
一晩目を覚まらずよく寝るとい

그것은 부모가 밤마다 칭얼대는 아기에게  
それは、夫婦が夜ごとにくずる赤ちゃんに

곧장 달려가지 않고 아기 스스로 마음을  
すぐ走っていかず、赤ちゃん自ら心を

달랠 기회를 갖도록 '잠깐 멈추기'를  
あやす機会を持つように'ちょっと休止'を

한다는 것이다. 출생 직후부터...  
するのです。出産直後から...

- 파멜라 드러커맨의《프랑스 아이처럼:  
- パメラ・ドラッカーマンの〈フランスの赤ちゃんのように:

아이, 엄마, 가족이 모두 행복한 프랑스식 육아》중에서 -  
赤ちゃん、ママ、家族がすべて幸せなフランス式育児>より -

\*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야  
\* 子供をすべて育てて

밤에 잘 자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지만...  
夜よく眠る方法をわかるようになったが...

이 글을 보며 새삼 어린 아기들이라도 사랑으로  
その文章を読んで、今更のように赤ちゃんにも愛で

존중해주고, 할 수 있다고 믿어줘야 함을 배우게 되네요.  
尊敬してあげて、できると信じなければならぬことを学ぶことができますね

고도원님의 글에서 자주 봤던 '잠깐 멈추기'라는 말이  
ゴ・ドウォン様の文章にもよくあった'ちょっと休止'という言葉に

이 책에서 이렇게 유용하고 색다르게 적용된 것을  
この本にこのように有用で、目新しく使われたことを

보고 반가운 마음에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みて、うれしい気持ちで初めて文章を残してみます

늘 감사합니다.  
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赤ん坊がぐずる 재생  
아기가 칭얼대다  
달래다  
[타동사]  
(위로하다) 慰める; 紛らす.  
(좋은 말로) 宥める; すかす; あやす.  
육아 (育兒)  
[명사] 育兒; 子育て.  
새삼  
[부사] 今更; 今更のように; こと新しく.(=새삼스레)  
색다르다 (色—)  
[형용사] 色[風] 変わりだ; 異様だ; め新しい.  
반갑다  
[형용사] 懐かしい; うれしい; 喜ばしい.(→반가이)